

속리- 법주사자연관찰로 연령별 시나리오(성인용)

1. 기획목적

- 가족단위나,성인을 대상으로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도록 만든 시나리오입니다.성인들을 대상으로 편안하게 설명이 가능한시나리오입니다.

2.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방법

- 대상자 : 초등학생과 가족단위, 성인(20명)
- 대상지 : 법주사자연관찰로
- 준비물 : 리플렛, 안내서
- 계절 : 가을
- 소요시간 : 1시간
- 관찰로 길이 : 700m

3. 프로그램 시나리오

(1)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자연해설을 맡고 있는 자연환경안내원 ○○○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야생화,나무,무엇보다 가슴속 깊이 들이마실수 있는 산뜻한 공기가 느껴지나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의 소중함과 더불어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보다 더 큰 자연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2) 국립공원 소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속리산 등등)

네..속리산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 이제부터는 속리산국립공원이라고 부르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등을 대표할 만한 곳을 국가가 지정하여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속리산국립공원이라고 부르면 ○○○선생님이라 부르는 것처럼 존칭을 해 주는 거니까요...^^

국립공원에 대해서 좀더 말을 하자면 우리나라는 20개의 국립공원이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12.29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6번째로 1970.3. 24.지정된 곳이 바로 속리산국립공원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다른 19개의 국립공원도 다 둘러보세요!!

(3) 국립공원 방문 시 주의 사항

국립공원은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니 만큼 우리가 아끼고 보호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국립공원을 방문 할 때 지켜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말해볼까요?

맞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취사, 야영이 금지되어 있고, 성냥, 라이타등 인화물질을 갖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특히 건강에도 좋지 않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지 되어 있으므로, 애연가 분들께서는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국립공원 내에서는 피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애완동물도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숲

숲은 인간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 증진에 기여합니다. 귀의 건강을 자극하는 시끄러운 소음을 조절하고 맑은 공기를 호흡할 수 있게 대기를 정화시키며 온도, 햇빛, 바람 등의 기후를 완화시켜주는 등, 숲은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보건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도시의 혼탁한 대기는 풀이나 나무 등 숲을 통과하면서 여과되고 정화됩니다. 대기 중에는 각종 오염물질이 먼지 알갱이 상태로 떠다니는데 이 알갱이들은 풀잎이나 나뭇잎 줄기 등에 흡착되어 주변의 공기가 정화됩니다. 농경지가 먼지를 흡착하는 능력을 1로 볼 때 잔디밭은 2배, 작은키나무로 이루어진 관목숲은 20배 그리고 울창한 숲은 농경지의 200배에 이릅니다. 그러니..숲은 중요성을 알겠습니까??^^

(5) 속리산을 대표하는 소나무

소나무는 특히 속리산과 참으로 인연이 많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속리산으로 들어오는 길원쪽으로 위치한 큰 소나무를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우뚝하니 서 있는 나무가 바로 속리산에 대표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이품송입니다. 이 나무의 얽힌 사연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세조 임금이 법주사로 행차할 때 ‘가마가 연에 걸린다’라고 소리치자 스스로 가지를 들어올려 가마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여 정이품에 해당하는 벼슬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나무 중 가장 넓은 지역에 분포하며, 현재 저희 속리산에서도

소나무를 복원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요즘 전국적으로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재선충으로 번지고 있는데 1905년 일본에서 처음 발생하여 우리나라는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번식되는데 여러분이 산행하시거나 소나무가 말라 죽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즉시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소나무는 잎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잎 2개인 나무를 보통 소나무라고 부르며, 잎 3개인 나무는 리기다소나무, 잎이 다섯 개 이상이면 잣나무라고합니다.

솔방울의 비늘조각은 날씨에 따라 벌어지기도 하고 굳게 닫히기도 합니다.

(6) 단풍나무

단풍이 드는 이유는 일종의 노화현상으로 가을이 되면 녹색빛을 내는 엽록소가 파괴되고 엽록소 때문에 숨어 있던, 붉은 색을 내는 안토시아, 노란색을 내는 카로틴 등이 나타나게 되어 색깔도 제각기 다르게 단풍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풍나무라고 하면 5개로 갈라진 아기 손바닥 모양을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단풍나무를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우선 3장으로 갈라진 나무는 신나무, 5개로 갈라진 고로쇠나무, 7~9개로 갈라진 단풍나무, 9~11로 갈라진 당단풍으로 나뉘어 잡니다.

단풍나무의 꽃은 봄에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천사의 날개처럼 생겼습니다. 단풍나무의 꽃은 봄에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천사의 날개처럼 생겼습니다. 어디로 날아가려고 작은 씨앗에 날개를 단 걸까요? 모든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가기 위해선 적당한 양의 물과 빛, 그리고 양분이 필요하죠.

단풍나무아래를 한 번 살펴볼까요? 어때요? 과연 작은 씨앗이 떨어져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커다란 단풍나무 아래에선 햇빛을 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또한 토양속의 물과 양분을 가지고 부모나무인 큰 나무와 작은 씨앗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작은 씨앗이 경쟁에서 이기려야 이길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부모나무인 큰 나무는 자식인 작은 씨앗과 경쟁을 하고 싶을까요? 우리 중에 자식과 경쟁하고 싶은 분! 혹시 계신가요? 자식과 경쟁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이 잘 되길 바라죠. 그래서 단풍나무 열매엔 자식인 작은 씨앗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씨앗에 날개를 달아 좋은 곳으로 보내려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사에서나 식물사에서나 똑같나 봅니다.

(7) 산을 지키는 여섯형제 참나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과연 어떤 형제들이 우리나라의 산을 지키고 있을까요? 정답은 다름아닌 낙엽지는 참나무 6형제입니다. 앞에 '낙엽지는' 이라는 말을 붙인 까닭은 참나무에는 낙엽성 참나무뿐만 아니라 겨울이 따뜻한 남쪽 지역에 가시나무라는 상록성 참나무도 있습니다. 엇! 그런데 무언가가 이상하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은 참나무란 어느 특정한 나무 한 종을 일컫는 말은 아닙니다. 도토리를 맺는 참나무과의 나무들을 통틀어 흔히 참나무라고 합니다.

● 상수리나무 : 임진왜란 당시 선조 임금의 북으로 피난을 가다가 먹을 것이 부족하여 도토리묵을 만들어 드렸는데 한양으로 환궁한 후 이 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진 나무라 하여 상수리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 굴참나무 : 껍질을 만져보면 푹신푹신하여 와인 등의 마개로 쓰이는 코르크의 원료입니다. 또한 물이 안 들어가고 불에 잘 안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강원도를 비롯한 산간지역에서는 굴참나무 껍질로 굴피지붕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 졸참나무 : 참나무 중에 가장 잎이 작아 졸병참나무라하여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잎이 작다보니 햇볕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참나무류 중에서 키가 가장 큼니다. 그리고 졸참나무 도토리로 만든 묵의 맛은 어떤 나무의 도토리보다 좋습니다.

● 신갈나무 : 신갈나무는 산 중턱 이상에 많이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나무꾼이나 나그네들은 짚신 바닥이 헤어지면 이 나무의 잎을 깔았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을 간다'는 의미의 신갈나무라 불립니다.

● 떡갈나무 : 떡을 쌀만큼 넓은 잎을 가진 나무라하여 떡갈나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현대 과학으로 조사를 해보니 이 나무의 잎에는 방부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상들은 어떻게 많은 나뭇잎 중에서 떡갈나무 잎을 이용했을까요. 신기한 일입니다.

● 갈참나무 : 가을이 되면 나무껍질이 얇게 벗겨지는데 이처럼 나무껍질을 간다하여 갈참나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8) 생강나무

겨울이 지나기 전,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꽃이 피어 계곡을 노랗게 물들이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나누어지는 나뭇가지랑 잎을 냄새 맡아 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요? 요리 좋아하시는 분은 금방 알 것 같은데 ..어머님들이 집에서 음식을 할때 양념으로 쓰기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생강이지요...이 나무가 생강냄새가 난다고해서 생강나무입니다. ^^ 나뭇잎 모양이 특이하죠?

포크모양이나 곰 발바닥모양 같지요! 또한 생강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있습니다. 산수유라고 하는데 두 나무를 잘 비교하시면 수피가 완전히 다르다는걸 알 수 습니다 . 생강나무는 수피에 얼룩덜룩한 반점이 있는 반면, 산수유는 수피가 너털너털 지지분하게 벗겨지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생강나무는 꽃자루가 거의 없이 줄기에 꽃이 피고, 산수유는 줄기가 아닌 가지 끝에 꽃이 핍니다. 잎도 생강나무는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산수유는 중국에서 들여와 약재로 이용하기 위하여 민가에서 재배하였다니 마을 주변에서 만나는 것은

산수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 속리산의 계곡

여러분 중에 속리산의 천황봉 정상에 가 보신분이 계신가요? 빗물이 정상기준으로 북서쪽으로 떨어지면 한강, 동쪽으로 낙동강이 되며 남쪽으로 흐르면 금강의 발원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쪽의 흐르는 곳에서 흐르는 물을 드십니까??^^ 옆에 흐르는 이 계곡 물은 1급수의 해당하기 때문에 갈겨니, 모래무지, 버들치등이 있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계곡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과자를 던져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계곡물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깨끗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이러한 아이들을 부모님들께서 잘 타일러주세요.

(10) 조릿대

여러분 앞에 무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은 바로 키 작은 대나무 조릿대입니다. 조릿대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쌀을 거를 때 사용하는 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대나무를 썼다고 해서 조릿대라고 하구요. 또 산에 많이 있는 대나무란 뜻으로 산죽 이라고 한답니다. 대나무는 히로시마 원폭의 폐허지와 월남 고엽제로 황폐화되어 식물이 살 수 없는 지역에서도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생명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도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로도 유명합니다.

그럼 문제하나!!

대나무의 꽃이 필까요?

네 맞습니다. 대나무는 일생에 한번 꽃을 피우는데 이것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겨울 먹이인 조릿대가 야생동물의 수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가끔 멧돼지가 내려와 농가에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이를 너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물 입장에서 인간이 자신들 땅을 침범한 것 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굉장하게 많은 야생동물이 있었습니다.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의 출현은 그만큼 보존이 자연에 대한 보전이 잘 된 것으로 인식하시고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 나무의 나이테

나무의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나무의 잘린 단면을 보면 동심원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을 나이테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어린나무는 나이테의 간격이 넓고, 늙으면 좁아지고 봄여름 세포가 성장할 때 생기는 밝은 부분과 가을 겨울에 세포의 생장이 멈춘 시기에 생기는

질은 부분이 교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방향에서 햇빛이 많이 비추었는지, 언제 잘 자랐는지, 언제 가장 힘들었는지 등등 강수량, 기온, 토양성분, 일조량, 병충해등의 영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12) 쓰러진 나무

여러분 앞에 쓰러진 이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죽은 나무를 여기에 그냥 내버려 둘까요? 국립공원에서는 이 죽은 나무에도 역할이 있다고 여겨서 사람이 건강하면 병을 안 걸리는 것처럼 건강한 나무는 버섯이나 곤충이 들어가 살 수 없지만 죽은 나무에서는 버섯이 살 수 있으며 다음에는 벌레들이 그리고 다음으로는 딱따구리가 찾아오면서 나무는 서서히 분해되고 결국 쓰러지고 이 나무는 숲속의 양분이 되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양분은 주변의 나무가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13) 끝인사

저와 함께 했던 숲속에서의 공부는 어땠나요?! 만족 하셨나요? 그럼 자연의 고마움과 소중함도 느꼈나요? 아낌없이 주는 자연에게 우리도 무언가 보답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보답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런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자국만 남기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자! 아니온 듯 다녀가소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을 실천할 수 있다면 자연도 우리들에게 고맙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립공원은 여러분의 발길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국립공원을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